

성분 호응에 관한 국어교육적 소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중심으로

송현정**

I. 들어가는 말

성분은 문장 범위에서 격을 중심으로 구성 요소를 파악할 때 지칭하게 되는 문법 용어이다. 격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내릴 수 있는 판단, 다시 말해서 누가 그 일을 일으켰는가, 누구에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변했는가”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어떤 판단의 유형을 나타내는 보편적이고 생득적인 개념의 집합이다.(Fillmore, 1968: 24)¹⁾ 문장은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 구조체이다. 그리고 성분의 호응이란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형식과 의미에 맞게 적격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일컫는다.

실상 국어교육에서 다루는 언어는 문장 단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화의 차원이며, 문장 이상의 단위의 사용 상황이 중요시된다. 그

* 이 논문은 국어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자격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임.

** 이화여대 강사

1) 김기혁, 『국어 문법 연구』, 554면.

격문법에서의 격이란 심층 구조격이다. 그러나 이 심층 구조격은 완전히 의미 중심이 아니라 통사적인 성격을 갖는 통사 의미격으로 보아야 한다.

러나 의미 완결의 기본적 단위로 문장을 일컬으며, 특히 쓰기와 같은 문어 텍스트상에서는 문장의 결합으로 텍스트가 이루어진다는 형식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에, 성분들간의 호응과 같은 문제는 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국어교육 언어 영역의 기초적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성분 호응의 문법적 특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 보고, 초등과 중등 수준의 국어 학습자에게 쓰기와 말하기 같은 언어 표현 영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교육적으로 접근하겠다.

II. 성분 호응에 관한 문법적 논의

1. 문장의 이원 구조

문장은 성분과 같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은 그 성분인 어휘소나 문법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목적 기능인 의미 전달을 하게 된다. 주어와 서술어가 밀접한 관계로 결합할 뿐더러 그것들을 이루는 어휘소들이나 문법 요소들도 일정한 차례와 짜임새로 엮여 있다. 곧 문장은 그 목적 기능인 뜻의 전달을 하도록 여러 성분 요소들이 긴밀하게 짜여진 '구조'이다.

성분들의 긴밀한 관계로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때 보편적인 관점은 주어와 서술어의 이원 구조로 보는 것이다(서정수, 1996:6~7). 즉 이것은 문장을 주어라는 성분과 서술어라는 두 성분이 결합된 언어 구조로 파악하는 것인데, 주어는 대개 문장의 앞 부분에 위치하며 체언을 핵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서술어는 대개가 주어 다음에 이어지는 풀이되는 요소들을 가리키며 용언이 핵심을 이룬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형식에 대해서 최현배(1971:749)는 다음의 세 종류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 무엇이 어찌한다. -영수가 운동을 한다.

- 무엇이 어떠하다. - 하늘이 노랗구나.
- 무엇이 무엇이다. - 그 사람이 범인이라니.

이러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용언의 성격에 따라 네 가지로 볼 수도 있다.(서정수, 1996: 298)

- 무엇이 어찌한다. - 동사 또는 움직씨
- 무엇이 어떠하다. - 형용사 또는 그림씨
- 무엇이 있다. - 존재사
- 무엇이 무엇이다. - 지정사 또는 계사

서술어가 되는 용언을 중심으로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각 용언은 그 앞에 수식어나 명사구 등 여러 성분들과 결합되기도 하고 그 뒤에 여러 서술 보조소와 어울려서 문장의 서술 기능을 드러내는 데에 핵심 구실을 하기도 한다. 즉 용언은 그 앞 성분 또는 뒷 성분과의 결합 관계를 통하여 서술 기능을 의미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온전하게 드러낸다(서정수, 1996: 300). 용언은 또한 갖가지 다른 성분과 어울려서 서술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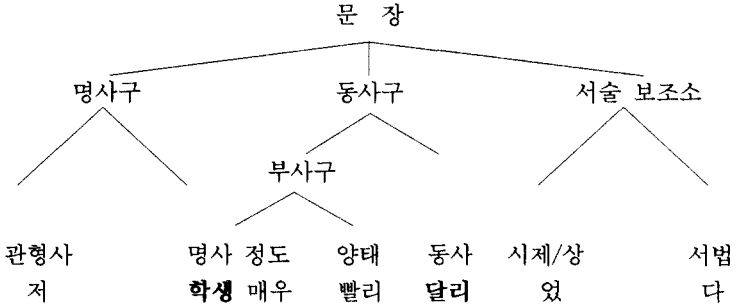
서술어가 문장 구성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허웅(1983: 248)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월이란 풀이말을 중심으로 하여, 임자말과 부림말, 위치말, 방편말, 견춤말, 어찌말, 인용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에 이끌려 하나의 통일된 짜임새로 묶여 진다.”고 하여 문장에서의 서술어가 차지하는 중심적 기능을 논하고 있다.

위의 논의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문장 구조를 주어와 서술어의 이원구조로 파악하는 구체적인 예를 보자.²⁾ 서정수(1996: 101)는 문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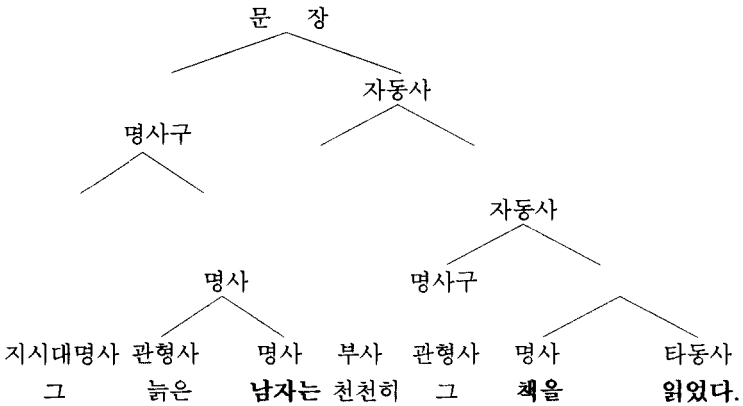
2) 김기혁, 앞의 책, 536면 참조.

영어의 경우 단순 서술문은 두 필수적 주요 성분인 주어(subject)와 서술어(predicate)로 구성되었고, 여기에 첨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속어(adjuncts)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전통 문법이나 현대 통사 이론에서의 기

명사구와 동사구와 서술 보조소로 이루어진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구조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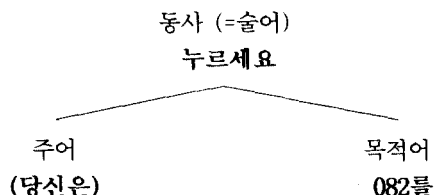
범주 문법 또한 문장의 구조를 명사구와 동사구로 파악함으로써, 문장의 전체 구조를 주어-서술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와 같이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의 주된 관계로 보는 것은 일반적

초적인 원리이다. 그리고 부속어는 문장의 문법성을 깨뜨리지 않고 빠질 수 있음에 비해, 주어와 서술어는 빠질 수 없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는 핵어(nuclear words)이고, 부속어는 비핵어(extranuclear words)라 한다.

으로 전통 문법의 관점이다. 관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문장에 대해 동사 중심으로 설명하는 의존 문법적 관점에서는 문장의 구조를 특정한 의미와 형식의 보족어를 요구하는 상위 단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결합가의 개념으로 파악한다.³⁾ 결합가는 형식적(통사적) 범주나 내용적(논리·의미적) 범주로 간주될 수 있다. 통사적 층위에서는 문법적 술어(동사)는 논리적 술어에 해당하며, 논항의 통사적 대응물은 보족어라 하여 이를 구별한다. 문장의 통사적 결합가 관계에서는 동사 교점이 문장의 구조적 중심으로 간주⁴⁾된다.(이점출, 1991: 39) 이를 구조화하여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실은 결합가가 동사에서 가장 뚜렷하고 특정한 보족어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들과 함께 문장의 골격을 이룬다는 관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사는 활용, 법, 시제, 태 등 구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 견해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언어를 완전하게 기술하고 있는 문법은 없다. 이 관점도 다만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종래의 지배 결속이론에서는 주어가 동사구에서 의미역을 받아 의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 이론에서는 주어가 동사구 안에서 관계를 맺

3) 결합가는 구성소들의 필연적 지배력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볼 때 같은 관점에서 호응가란 구성소들이 상호 어울릴 수 있는 정도의 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예를 들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술어 중심으로 논할 때 술어는 주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를 허가하고 있게 된다.

판단된다: [피동성[주체]]

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의 논의들에서 보이는 일관된 주장은 모두 주어와 술어와 직접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박영순, 1993: 281)

위와 같은 여러 논의를 통하여 문장의 성분 구조는 주어-서술어 관계와 그 주변 보조 관계들의 결합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알아 보았다.⁵⁾

2. 의존과 지배의 의미 기능

문장은 언어 요소들, 보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나 혹은 여러 개의 형태소들로 구성되는 단어들의 구조화된 집합이다. 이 요소들 사이에는 특정한 기본 관계가 성립하는데, 의존 문법에 따르면 문장의 기본 관계는 연결(connection)이며, 이 연결은 상호 공기와 의존의 원칙에 따라 표현된다.(이점출, 1991: 21) 그리고 텍스트는 이러한 문장들이 구조화되어 이루어진 집합이다. 이 구조체들은 모두 결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속성과 위계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 요소의 결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기능 중 '의존'의 개념은 성분 호응의 주요한 관계 기능에 해당한다. 문법 이론에서 말하는 의존 관계(dependency relation)란 서로 다른 계위(rank)의 문법 항목들 사이의 관계이며(영어학 사전, 1990: 327), 하나의 성분을 이루는 두 개의 구성 성분 중 전체의 성분으로 대치될 수 없는 구성 성분은 다른 하나에 의존적이게 된다는 개념을 내포한다.⁶⁾

5) 이와 같은 문법적 설명은, 성분 호응에 대한 전략적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암시를 마련해 준다.

6) 예를 들어 '점잖으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라는 명사구에서 '선생님들'은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항목이지만, 나머지 항목은 이 명사에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또한 '선생님들'에서 '선생'은 독립형이지만 '-님'과 '-들'이라는 형태소는 의존적인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의존 관계는 일방적(unilateral)인 것이지만, '학생들은 점잖으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잘 따른다.'는 문장에서 명사구와 동사구는 의존 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이 두

의존은 언어 요소가 독립적으로 고립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 요소와의 의존적 결합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는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성분들의 호응은 언어 요소와 언어 요소간의 의존 관계로 이루어진다. 언어 요소들은 의미적으로 상호 의존하게 되는 의존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의존하는 언어 요소의 생략이 문맥 의미를 왜곡하거나 상실하게 할 때 의미의 결여 현상이 발생한다.⁷⁾

호응에 대한 기능을 설명할 때, 의존 관계와 함께 지배 관계(government)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배 관계란 특정 술어가 심층 구조에 삽입되면 그 존재로 해서 문의 다른 부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성분 관할의 관계를 말한다.⁸⁾ 이러한 특정 항목에 관한 지배적 선택은 술어의 개별적인 동기에 기초를 둔 다른 자질에 의하여 잉여적으로 지정되거나 기저 격 관계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통 문법에서 지배의 개념은 한 단어가 다른 단어에 격을 주는 것을 의미하였다.(박영순, 1993: 233) 이것은 언어 구성 요소인 단어들의 결합 방식과 관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동사나 전치사는 그 목적어를 지배한다. 그러나 Chomsky에 이르러서 그 개념이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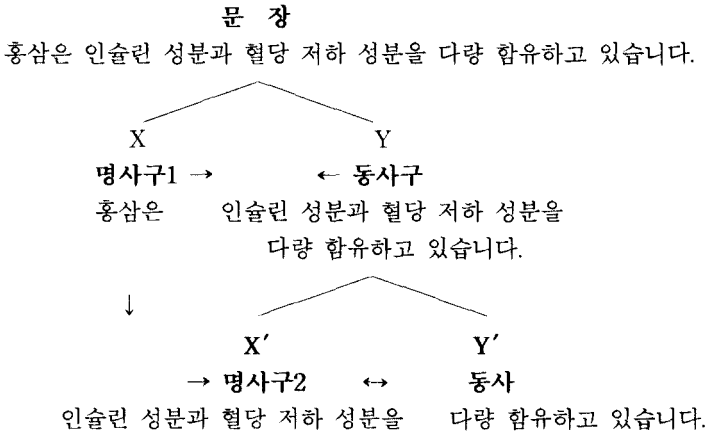
구들은 서로를 요구한다. 호응에서 관련 기능으로 지적하고 있는 '의존'의 개념도 이와 같이 의미적·형태적 의존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의존적인 두 언어 요소들이 결합하여 적격한 완결을 이루게 된다.

- 7) 하나의 언어 요소 자체로 완전한 형태와 의미의 전달이 가능한 것은 호응의 범주에서 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 이유는 호응이 의존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두 단위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미적·형태적 조화 양상이라는 규정을 따르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 8) 영어의 예를 들면 지배 관계가 전치사와 명사구를 관련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give something to somebody(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준다.)', 'accuse somebody of something(무엇인가에 대하여 누구를 비난하다.)', 'blame something on somebody(무엇인가를 누구의 탓으로 하다.)', 'interest somebody in something(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구의 흥미를 끌게 하다.)', 'acquaint somebody with something(누구를 무엇인가에 친숙하게 하다.)' 등의 예에서 전치사와 명사구가 동사구에 관련되어 지배 관계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되어 사용되었으며 이는 격이론, 의미역 이론, 결속 이론 등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되었다. 지배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상해 주는 것이 격표시이며, 국어에서는 격조사가 그 예에 해당한다.

지배 관계는 하나의 구에서 핵과 그 보어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 성분과 통어의 개념으로 다시 형상화될 수 있는데, X가 Y를 관할하지 않으나 X를 관할하는 처음의 교점이 Y도 지배할 때 X는 Y를 성분 통어(c-comment)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Y도 X를 성분통어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통어 →
 상호 통어 ↔
 관할 ↓



이와 같이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성분 통어를 통해 지배 관계를 이루는데, 문장 차원에서는 조사가 격표시로 기능하며, 이 지배 관계의 인식은 서술어와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관계의 단위로 취할 때 성분 간의 호응에 영향을 주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Ⅲ. 성분 호응의 교육적 실제

문장의 전통적인 구분은 문장을 이루는 기본 관계로서의 [주어-술어] 관계이며, 주어와 술어는 문장의 핵심을 형성하는 주요 문장 성분으로 간주된다.⁹⁾ 본고에서는 성분의 호응을 문어 중심으로 논하는 측면에서, 문장을 이루는 완결 구조로서의 [주어-서술어]의 이원 구조로 파악하도록 하겠다.

문장에서 그 구조를 가장 뚜렷하게 표상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이며, 주어는 문장에서 다루어지는 대상을 가리키고 서술어는 그 주어에 대한 무엇인가를 언급하여 문장 서술을 완결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여타의 성분들은 필수적·수의적 속성을 떠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관련되는 관계 성분으로 분석할 수 있다.¹⁰⁾

9) 이외에도 문장 성분 가운데 서술어에 의해 통제되는 것은 보어(completion)로, 그렇지 못한 것을 주변어(peripheral)로 나누기도 한다. 보어와 주변어의 구별은 기본문의 설정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Matthew(1981: 123~127)에서는 두 요소를 다음 5가지의 범주에서 분석하고 있다.

①관념성(notional), ②병치적 제약(collocational restriction), ③필수성(obligatory)과 수의성(optional), ④내재성(latent), ⑤요소의 첨가(addition), 삽입(insertion)

10) 이 관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즉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기본 구조이며 문장을 이루게 하는 완결 구조로서의 관계에 주목하는 관점이다. 사실 구어에서는, 주어나 서술어가 아니라 다른 성분이 문 구조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너 뭐 먹었니?”-“빵”, “어떻게 부산에 갔어?”-“기차타고 (갔어).”와 같은 발화상에서 대답들의 경우, 전자는 목적어, 후자는 부사어가 문에서 중심이 된다. 이것은 이용주(1993: 27)의 필수 성분과 부속 성분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즉 담화 차원인 文에서 필수 성분이라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공유하지 못하는 정보를 표현하는 형식뿐이며, 그 수효는 담화의 언어적·비언어적 맥락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어에서는 문의 완결 형식과 의미를 지향하는 문어적 특성상 주어와 서술어가 이원 구조로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성분 호응의 관계 단위로서의 성분이 갖는 역할은 문구성의 격을 표현하는 언어적 단위이며 이때 주어와 서술어간의 관계에 초점이 주어지게 된다.

1. 성분 호응의 언어 구조적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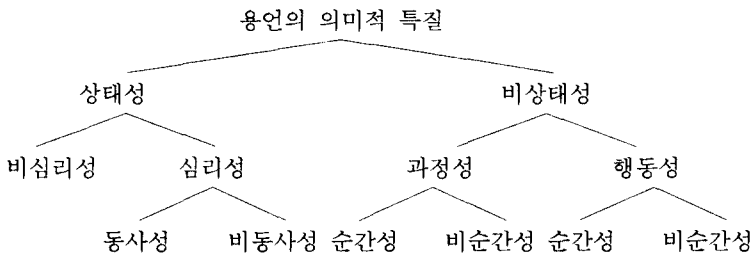
성분 호응의 언어 구조적 제한이란 언어 구성 요소들이 통사적으로 결속 관계를 이룰 때 있게 되는 환경의 제한 사항을 말한다.

성분 호응의 언어 구조적 제한 문제에서는 함께 실현되는 단위들간의 제한 문제를 동반 제한이라 하고, 함께 어울리고 이어지는 단위들의 문제를 결속 제한이라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동반 제한

동반 제한은 문장 내의 성분들이 결합 단위로서 함께 실현되지 못하게 되는 형태적 제한 사항을 말한다. 통사 구조상에서 찾을 수 있는 동반 제한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보다는 서술어와 부사어 등의 성분들이 관계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성분 호응의 기준 관계 단위로서 서술 기능을 하는 국어 용언의 의미 특질을 상세히 분류하여 다른 성분과의 동반 제한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국어 용언의 의미 특질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서정수(1996: 320)의 분석을 보도록 하겠다.



국어에서 동사, 형용사 등의 용언은 위와 같은 의미적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 일부 한정된 성분하고만 동반하는 제한을 보이는데, 부사어와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제한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 (1) 우리 학교 2학년 3반 반장은 매우 예쁘다.
- (2) * 우리 학교 2학년 3반 반장은 잘 예쁘다.

'예쁘다'와 같은 상태성 심리적 형용사는 '정도와 상태'라는 의미적 자질을 가진 범주로서 정도 부사와는 자연스러운 성분 호응을 지니지만, '잘'과 같은 부사와는 결합되지 못한다. 이러한 간단한 제한 조건들은 용언의 의미 특성에 맞추어 결합되는 동반 제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국어의 동반 제한의 형태적·구조적 특성은 주로 부사어와 서술어간의 제한에서 드러난다.

나. 결속 제한

성분 호응의 언어 구조적 제한을 결속(cohesion)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결속이란 표층 구성 요소들이 문법적인 형식과 규칙에 따라 상호 의존하여, 문법적인 통합을 이루게 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결속이란 우리가 보고 듣는 실제 단어들(하나의 연쇄(sequence) 속에서 상호 연관짓는 방식에 관여되며, 표층 요소들간의 관계를 표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이 개념 속에 포함된다.(김태옥·이현호, 1991:5)

호응에서 문제시되는 성분간의 결속 문제는 격의 인식, 그리고 이것이 표상화되는 표지의 문제에서 일어난다. 이때 성분들의 결속 제한상은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실현 성분들의 부적절한 결합의 양상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성분 결여로 인한 비호응의 관계가 그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부적절한 성분 관계를 알아 보자.

- (1a) 민회는 도서관에 갔다.

민희는 도서관을(도/만/까지) 갔다.

(1b) 민수는 극장에 다녀왔다.

민수는 극장을(도/만/까지) 다녀왔다.

(1c) 민철이는 유치원에 다닌다.

민철이는 유치원을(도/만/까지) 다닌다.

위의 (1a), (1b), (1c)에서 [명사+에]와, 각각 [명사+을]과 [가다, 다녀오다, 다니다] 등의 서술어의 관계에서 보이는 의미 차이는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전자는 목표점을 나타내고 후자는 대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 의미의 구별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김기혁, 1995: 589)

그러나 다음 (2)는 (1)의 ‘가다, 다녀오다, 다니다’라는 자동사와는 달리 타동사 ‘이기다’로서, 목적 대상이 필요한 경우인데, 위치 대상을 의미하는 조사 ‘-에’가 쓰여서 성분 관계의 비호응을 보이고 있다.¹¹⁾

(2a) 3반이 1반을 이겼다.

(2b) ? 3반이 1반에 이겼다.

이것은 다음 (3)과 같은 표현과 관련된 격인식의 혼란에서 오는 문제이다.¹²⁾

11) 김기혁, 앞의 책, 131면.

타동사가 서술어인 경우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때 목적어는 서술부에 포함된다. 그것은 목적어가 타동사나 아니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으로 주어 쪽에 의한 구성 성분이기보다는 동사 쪽에 속한 구성 성분으로서 동사와 함께 서술어를 형성한다. 국어의 경우 목적어의 어순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기 때문에 목적어를 주어, 서술어와 대등한 입장에 있는 성분으로 보기도 한다.

12) 국어의 조사는 격의 기능을 표상해 주는 유표적 표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때 조사의 역할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문장에서의 성분 기능은

(3) 3반이 1반에 졌다.

다음으로 성분의 결여로 인한 호응의 결속 제한을 살펴 보도록 하자. 문장이나 텍스트 구조에서 생략된 부분의 형태 차이는 주로 문법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서 모어 사용자는 거의 자동적으로 생략된 부분의 의미와 형태를 보충할 수 있다. 특히 문 구조를 통해 결여된 요소가 복구될 수 있는 경우를 구조적 생략이라 하고, 이것의 의미 단서는 문맥에서 주어진다.¹³⁾

(4) 날씨도 쌀쌀해지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도 가을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코스모스가 피어난 것을 보고도 (?) 더욱 가슴 깊이 느껴진다.

위 (4)의 경우는 문맥을 통해 ‘가을이’라는 주체 성분을 복원해 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5)와 같은 서술어의 결여는 문맥을 통해 의미와 형태를 복원해 낼 수 있는 구조적 생략이 아니다.

(5) ? 이제 후레쉬라는 단어도 왠지 낯설게만 느껴지는 시기이다. 지금껏 난 무엇을 이루어 왔고 또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

위와 같이 있어야 할 서술어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문맥을 통해서 복원할 수 없으며, 이것은 언어 사용자의 표현 내용에 의존해야 하는 어휘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다.

상호 성분간의 의미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조사의 표지 자체가 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예문들에서 조사가 하는 역할은 보조사로서 분명한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어 성분 관계의 호응성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13) Beaugrande and Dressler(1981: 67)에서도 지적하듯이, 구조적으로 생략된 의미의 복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조간의 거리가 일정한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엄밀히 말해서는 생략과 결여는 구별되어야 한다. 생략은 앞 뒤 문면에 나타난 중복 요소 중의 한 가지를 삭제하는 것이다.(서정수, 1996: 775) 이러한 생략은 확실한 복구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런 생략의 복구는 정도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6)과 같은 경우를 ‘완전 생략(strict ellipsis)’이라고 하고, (7)과 같은 경우처럼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대상이 생략되어 문맥에서 그 요소를 보충 가능한 것을 ‘일반 생략(general ellipsis)’이라 한다.

(6) ㉠강아지가 똥똥하지만 ㉡(강아지가) ㉢튼튼하지는 않다.

(7)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즉 문맥에서 동일한 요소가 생략되는 것을 완전 생략이라 한다면, 유사한 요소를 생략하는 것은 일반 생략에 해당한다.

(8) 5년전 러시아의 광부들은 파업을 통해 옐친이 권좌에 오르는 데 일조했지만 지금 그들은 그에게 괴로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그들에게 갚아줘야 할 수백만 달러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대가를 감수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지불하고 이 나라가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허약한 경제 안정을 위태롭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월드 뉴스 9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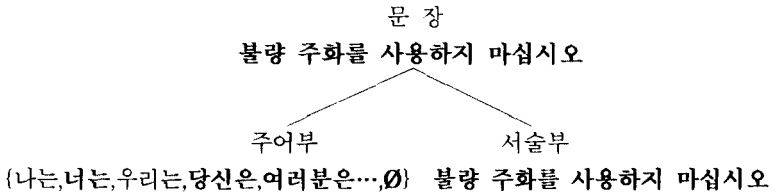
(9) 저희 레이디 가구에서는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하여 ㉡(가구점을 폐쇄하게 되어 이번 기회에,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성원해 주신 등) 손님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최대의 가격 파괴를 합니다.

<안내 플래카드>

위 (8)은 ㉢서술에 호응되는 주체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것은 문장

구조적으로 있어야 할 의무 성분인 주어가 빠져 있는 성분의 결여이다. 따라서 ㉠의 '그것은'과 같은 주어가 보충되어야 한다. (9)는 ㉠성분의 수식을 받는 서술 성분이 결여되어 있다. 즉 ㉡나 ㉢와 같은 서술 성분이 ㉠와 함께 있어야 언어 구조적으로 적절한 문장이 된다.

국어는 주어가 잘 생략되는 언어 구조이다. 오히려 어떤 문장에서는 주어가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내용은 '나, 너, 우리'와 같은 대상 지시어이다. 잘 알려진 대상 지시 또는 주체 대상이 주어로 기능할 때 흔히 주어는 표면화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생략과는 달리, 구성 요소의 공백으로 인한 형태적·의미적인 부적절한 양상은 결여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생략 현상으로 인한 결여는 표현과 이해의 이독성(易讀性)과 명확성에 장애를 주는 요소이다.

(10a) 내가 그 친구를 만났던 것도 이런 맑은 가을날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했던 행복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현재에 바쁘며, 하루하루에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조금은 우울하게 만든다.

위의 (10a)는 다음의 (10b)와 같이 관계 단위들의 ㉠와 ㉡간의 [수식+서술] 관계, ㉢와 ㉣간의 [주체+서술] 관계, ㉤와 ㉥간의 [객체+서술]의 성분 호응이 요구되는 문이다.

(10b) 내가 그 친구를 만났던 것도 이런 맑은 가을날이었을 것이다. 우

리가 함께 했던 행복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현재에 바쁘며, ㉠(앞으로) 하루하루에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나를) 조금은 ㉤우울하게 만든다.

그리고 논항과 서술어 사이에 분명하지 않은 관계나 성분간의 분리 와 같은 비연속적인 표현은 이해상의 문제를 야기하며 명확성을 저해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1) * 쓸쓸한 찬 공기를 느끼며 여기저기서 다가오는 삶의 숨소리를 간직한 채 나는 무언가의 ㉠공상으로 인하여 한없이 ㉡걸어만 가고 있다. 어둑어둑해진 밤하늘과 유난히 차디찬 세출의 밤공기, 그리고 나를 감시하듯 눈을 부릅뜨고 빨리 쳐다보고 있는 주위의 어수룩한 ㉢네온싸인들이 ㉣나의 정신을 더욱 더 ㉣환각시키는지 / ㉡나는 어딘가에 끌려 가듯이 걸어만 가고 있다. <대학생 작문 중>

위의 예문은 ㉠와 ㉡간의 비호응, ㉢와 ㉣간의 비호응, 그리고 ㉠과 ㉡간의 비호응이 전체 텍스트의 의미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 ㉠와 ㉡의 관계는 ㉠의 성분 의미가 '원인 제공'을 나타내는 '-으로 인하여'와, ㉡의 '걸어만 가고 있다'는 행동 서술의 의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둘의 결합이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못하다. 이것은 '공상에 빠져- 걸어만 가고 있다.'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의 '나의 정신을'과 ㉣의 '환각시키는지'는 '나의 정신을-환각에 빠지게 하는지'로 [대상-서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 ㉡의 '환각시키는지-걸어만 가고 있다.'의 관계는 '환각에 빠지게 하는지-나는 어딘가에 끌려 걸 어가고 있다.'로 이루어져야 명확한 의미가 전달된다.

일반적으로 문장 성분의 일부가 생략되어도 문장이 적절한가의 여부는 각 언어 사용자에 따라 주관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문맥에 의해 특정한 성분을 임의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국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므로, 문장 성분의 필수성은 문맥에 의하여 생략될 수 있는 성분의 생략이 아니라 그 성분이 있어야만 문장이 짜임을 이룰 수

있다는 의무성의 문장 성분이어야 한다.(김기혁, 1995: 540~542)

2. 성분 호응의 범주화 전략

가. 범주화 전략의 이론적 배경

성분 호응에 관해 초등 수준에서부터 교육적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 부분과 전체의 의미를 분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범주화 전략을 제안한다.

범주화란 세상의 여러 대상이나 사건들을 분류하여 비슷한 것끼리 묶어 기억 속에 저장하는 것을 말하며, 범주화 전략이란 범주적 사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사용의 전략을 일컫는 말이다.

어떤 언어 텍스트든 전체의 의미는 부분들의 의미와 부분들이 결합된 방식의 함수이다.¹⁴⁾ 이 원칙을 문장에 적용하면 문장의 의미는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어휘들의 의미와, 그 문장이 갖는 문법적 구조의 특질이 부여하고 있는 의미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성 어휘가 동일하더라도 결합 관계가 다를 때 문의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 문장의 의미는 어휘가 지니는 의미의 성분과 어휘들이 이루는 문법적 구조가 지닌 의미의 합성으로 결정된다.¹⁵⁾

성분 호응의 구조는 부분(segment)들의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다. 부분은 Chomsky(1986)¹⁶⁾의 용어로서 상위부가(chomsky-adjunction)에 의해서 얻어지는 구조를 말한다(영어학 사전, 1990: 1096). 한 범주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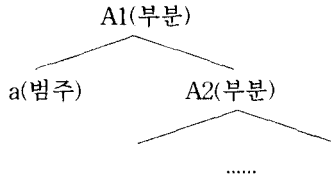
14) 『영어학 사전』, 신아사, 236면.

이것은 '전체의 외연은 부분의 외연들의 함수 관계에서 얻어진다'는 Frege의 이론으로서, 이를 합성성의 원리(compositionality)라 한다.

15) 합성 원칙의 결합 방향은 밑에서 위로(bottom to top)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언어 사용의 원리에 있어 합성성의 원리가 작용할 때에는 '밑에서 위로'와 '위에서 밑으로'의 방향이 병행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언어 구조는 위계성을 띠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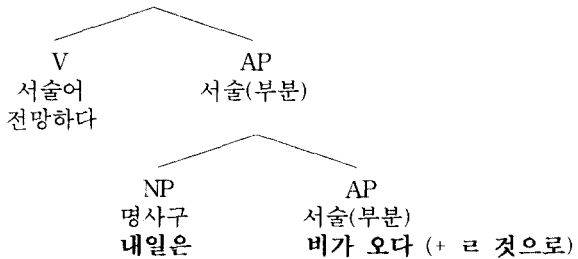
16) Chomsky(1986), *Barriers*, Cambridge, mass.: MIT Press.

가 한 절점(node) A에 상위부가된 구조에서, A1과 A2를 각각 부분이라고 하며 A1과 A2는 함께 한 범주를 이룬다. 이때 A1과 A2는 독립된 범주가 아니며, 다음에서 보듯이 구조는 한 범주의 하나 이상의 실현(realization)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부분’의 개념은 ‘발생(occurrence)’과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May(1985)¹⁷⁾는 부가가 일어날 때 생기는 새로운 절점은 새로운 범주가 아니라 부가의 착지점(landing-site)상의 절점인 범주와 범주적 자질(categorical feature)을 함께 하는 것으로 범주의 일부분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가는 한 범주의 여러 발생의 집합(a set of occurrences of nodes/categories)을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국어 예문을 통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로 분석된다.



모든 유형의 절에 있어서 하나의 ‘참여자’¹⁸⁾는 구조적으로 주어로

17) May(1985), *Logical form: Its structure and derivation*, Cambridge, Mass. : MIT Press.

18) 하나의 참여자 역할, 혹은 참여자 역할의 조합을 의미한다.

표현된다. 주어는 언어 기능의 실현에 있어서 정형 동사 요소와 더불어 법의 역할을 충족시켜 주는 명사류이다. 주어는 관점에 따라 행위자를 가리키는 '논리적 주어'와, 언어 소통 장면에서 화자와 청자가 택하는 역할과 관계를 말하는 '문법적 주어'와, 보다 더 큰 발화에서 메시지로서의 절의 조직과 관련된 '심리적 주어' 등이 있는데,¹⁹⁾ 문법에서 말하는 문법적 주어는 표층 구조의 현상이며 그 이면에는 논리적·의미적 구조나 혹은 심층 구조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²⁰⁾

이러한 관계 부여에서 성분 결합의 성분 호응 문제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행위자와 행위의 관계는 주체와 서술의 관계이며, 이것은 문장의 경우 주어와 서술어로 실현된다. 서술어에서 범주화되는 부분들이 문장의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형식화될 수 있다. 단문이든 장문이든 가장 기본적인 이원 구조로 범주화하여 의미를 일차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범주화 전략은, 이해 능력이 미숙한 독자나 표현 능력이 부족한 필자에게 시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 전략이다.

나. 범주화 전략의 구조

모어 교육은 '자연성'의 원리에 가장 충실히 따라야 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성분 호응 지도 또한 주어, 서술어 등의 성분 관계나 부사어의 수식이라는 문법적인 기술보다는 '무엇이-어떻게 되다' 등의 [주체-서술] 관계, '무엇을-어찌하다' 등의 [객체-서술] 관계라는 의미 중심

-
- 19) 세 유형의 주어를 인정하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다. 비록 이 용어들이 부적절하나 그 범주들의 유형은 대체로 명백하다.
- 20) 주어로서 표층되는 의미는 첫째, 능동적인 행위자를 표현한다. 능격 또는 행위자격이라 하는 심층격의 의미이다. 둘째, 주격이나 여격이라 할 수 있는 상태 보유자의 의미를 나타낸다. 셋째, 주어는 행위에 의해 영향받는 사물을 지칭할 수 있는 대상격을 나타낸다. 넷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장소를 표현할 수 있다. 다섯째, 도구나 수단을 지칭할 수 있으며, 순전히 형식적일 수도 있다.

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¹⁾

의미 중심의 관계 인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성분들의 결합 관계를 확인하는 자가 인지 확인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은 스스로 질문을 하여 문제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이다.

< 자가 인지 확인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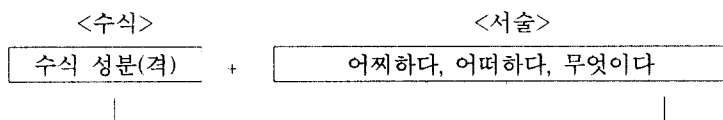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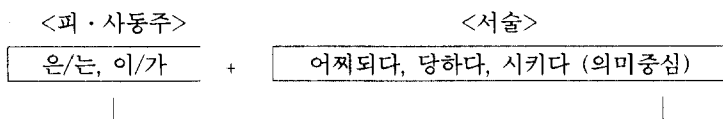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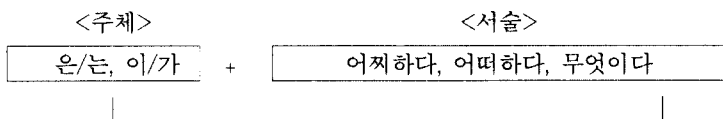
- 주체 대상의 확인
 - ① 내용 : 문장을 보고 주체가 무엇인지 우선 파악한다. .
 - ② 방법 :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주체를 인식한다.
 - 누가? 무엇이?, 어떤 것이?
- 서술 내용의 확인
 - ① 내용 : 문장을 보고 서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 ② 방법 :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서술 의미를 인식한다.
 - 어떻게 되었다?, 어찌하다?
 - (무엇이 어찌되었는지를) 어떠하다?
- 주체와 서술의 관계 확인
 - ① 내용 : 문장에서 주체와 서술의 관계를 연결하여 파악한다.
 - ② 방법 :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그 관계를 인식한다.
 - 누가 - 어떻게 됐나?, 누가 - 어찌 했나?
 - 무엇이 - 어찌 됐나?, 무엇이 - 어떠한가?
 - 무엇이 - 무엇인가?
- 객체와 서술의 관계 확인
 - ① 내용 : 문장에서 객체와 서술의 관계를 관련지어 파악한다.
 - ② 방법 :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그 관계를 인식한다.
 - 무엇을-어찌하나?, 무엇을-어떻게 하나?
- 수식과 서술의 관계 확인
 - ① 내용 : 문장을 보고 수식 부분과 서술의 관계를 파악한다.
 - ② 방법 :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그 관계를 인지적으로 확인한다.
 - 어떻게-어찌 하는가?, 어떻게-어찌 되는가?

21) 김진우, 『언어와 의사 소통』, 215~216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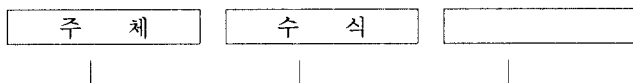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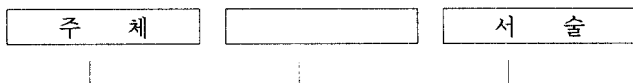
‘언어’와 ‘정보처리과정’의 관계를 말할 때 다음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문장의 기본 구조로서 [주어+술어]의 관계가 그 하나이고, 정보 구조로서 [주체+서술]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용어를 따르겠다. 이것은 하나의 문장이 「주체+서술」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에 산출하거나 처리하는 정보가 단수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복수적이고 위계적인 정보 구조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다음에서 몇 관계를 예로 들어 살펴 보자. 이것은 언어 요소들간의 [주체+서술], [피·사동주+서술], [객체+서술], [수식+서술]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성분 호응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한편 성분 호응의 문제에서 성분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의미적 공백을 확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자가 인지를 할 수 있고 범주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자일 뿐이며, 모든 문제 해결은 학습자 스스로 해야 한다. 성분 호응을 교수 학습하는 과정을 단계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비호응 관계를 인식하여 호응이 되도록 유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 호응 성분과 비호응 성분 관계의 인식	[교사+학습자]
2단계: 성분 비호응 단위의 발견	[학습자 중심]
3단계: 성분 비호응의 문제 지적·설명	[학습자 중심]
4단계: 전체적인 형태와 의미 확인·문제 해결	[학습자 중심]
5단계: 성분 호응의 인식과 구문 정리	[교사+학습자]

1단계에서는 교사의 보조적 설명과 학습자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문장에서의 호응과 비호응 성분 관계를 구별하여 인식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성분간 비호응일 경우를 발견하는 단계로서,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3단계에서는 비호응 성분의 구체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성분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단계까지 역시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분 호응에 대한 인식과 호응 구문에 대한 정리가 교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IV. 맺음말

표현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성분 호응은, 우선은 주어와 서술어라는 범주화로 인식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학습자 스스로 인지해야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 교사는 학습자가 정확한 관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바르게 교정해 줘야 한다. 성분 호응과 같은 문제는 언어 사용자의 관계 인식에 대

한 문제이므로, 정확한 표현을 산출할 수 있도록 언어 사용 초기 단계부터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성분 호응의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우선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주어와 서술어의 적격한 관계를 찾는 이원 구조 파악이라고 보았다. 국어교육에서 성분 호응과 같은 문제는 초등 수준에서부터 비중있게 다루어야 하며, 중등·고등 수준에서도 지속적인 교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다.

《 참고문헌 》

- 김기혁(1995), 『국어 문법 연구』, 박이정.
- 김진우(1994), 『언어와 의사 소통』, 한신문화사.
- 박승윤(1994), 『기능문법』, 『현대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문화사.
- 박영목·한철우·윤희원(1995),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 박영순(1993), 『현대 한국어 통사론』, 집문당.
- 서정수(1996), 『현대국어문법론』, 한양대 출판원.
- 송현정(1996), 「국어 호응성의 개념과 관계 유형 연구」, 『국어교육』 91,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 우형식(1990), 「국어 타동 구문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 논문.
- 이기동(1994), 「인지문법」, 『현대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문화사.
- 이남순(1987), 「국어의 격표지 생략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 이용주(1993), 『한국어의 의미와 문법1』, 삼지사.
- 이정민·배영남(1993), 『언어학 사전』, 박영사.
- 조성식 編(1990), 『영어학 사전』, 신아사.
- 최현배(1982), 『우리말본』, 탐출판사.
- 허 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 de Beaugrande, R. & Dressler, W.(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 Longman. 김태옥·이현호 공역(1991), 『담화·텍스트 언어학 입문』, 양영각.
- Fillmore(1968), *The Case for Case*, Universal in Linguistic theory, Holt Reinhart. 남용우 외 역(1988), 『격문법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 Ford, M.(1982), "Sentence Planning Units: Implications for the Speaker's Representation of Meaningful Relations Underlying Sentences",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Cambridge, M.I.T.
- Matthew(1981), *Syntax*, Cambridge Univ. Press.
- May(1985), *Logical Form: Its Structure and Derivation*, Cambridge, Mass. : MIT Press.
- Tarvainen, K.(1981), *Einführung in die Dependenzgrammatik*, Tübingen, 이점출 옮김(1991), 『의존문법 개론』, 한신문화사.